

‘천년 차(茶)의 프리포즈’ 보성다향대축제 개막

지역 대표 9개 축제 동시개최 8개 분야 79종 프로그램 ‘다채’ “한국 차 산업 활력 불어넣어”

2024년 보성군 통합대축제가 지난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천년 차(茶)의 유희, 보성의 프리포즈’란 주제로 개막했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대표 9개 축제가 동시 개최되는 통합 축제형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치단체장, 출향향우회장 등 국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올해 1월 자매결연을 맺은 보성군과 하동군의 다원결의(茶園結義)를 기념하고자 김철우 보성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가 함께 보성군 청사 광장에 하동군의 100년 이상된 고차수 1그

루를 식재하는 기념식수가 진행됐다.

이번 보성통합대축제 첫날 열린 개막식 행사는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을 다지는 보성군과 하동군의 다원결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군민들이 참여한 청년도약보성 퍼포먼스, 군민 체육대회, 군민 북면가왕, 시상식, 즐거운 보성콘서트 순으로 개최됐다.

‘하나돼 행복찬, 즐거운 보성콘서트’는 가수 안성훈, 박지현, 신유, 박규운, 편승엽 등을 초청해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함께 흥겨운 화합의 장을 펼쳤다.

축제가 끝나는 7일까지 군민의 날, 서편제보성소리,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음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이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또 보성티마스터컵, 오후의 타발, 녹차스탬프투어, 보성 찾아뺨기, 서울·제주



지난 3일 개막한 ‘2024년 보성군 통합대축제’에서 김철우 보성군수가 청년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보성군 제공

티 브랜드 체험관,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 등 전시·공연·체험 8개 분야 79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통합대축제를 통해 보성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 위

해 최선을 다했다”며 “보성다향대축제를 통해 한국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도 시대와 호흡하는 차 문화와 차 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기림 기자

‘참여자 성장과 힐링과정’ 교육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지역자활센터는 최근 1박2일 동안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한국자활연수원과 공동으로 기획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성장과 힐링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자활근로 참여자와 종사자 8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가치탐색과 표현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협력문화를 증진시키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교육 1일차에는 △갈등완화를 위한 평화소통 대화법, 갈등에 대처하는 마음근력 키우기 △전통놀이 도구를 이용하여 몸놀림을 통한 치유와 소통 △나를 찾는 음악 樂樂을 통해 시각과 청력 등 신체감각 저하를 감소시키고 악화를 예방하며 지적 자극, 창의력 현실인식,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의사결정능력을 끌어올려 사업단 팀원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이튿날에는 충주호 유람선에 탑승해 정서·심리적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문화체험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수미 센터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참여 주민의 정서·심리적 회복 및 재충전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홍수기 대비 선제적 수위 조절 주암·장흥댐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유영호)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주암댐·장흥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사전에 확보해 극한 호우에 대비하고자 6일 오전 11시부터 선제적으로 수문 방류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주암댐은 예년 대비 172%, 장흥댐은 예년 대비 154%의 많은 비가 내려 지난 3일 오전 7시 기준 주암댐(본댐) 수위는 예년 대비 9.2m 높고(현 수위 EL.106.2m), 장흥댐은 예년 대비 4.8m 높은(현 수위 EL.74.9m) 상황이다.

과거 댐 운영 실적, 향후 용수공급 전망, 댐 하류하천 상황 등 고려해 댐 홍수조절용량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저수량까지 최소한의 방류량으로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이는 제69회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안정적 홍수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홍수기 전 댐(저수지) 수위 조절계획에 따라 홍수기 시작일까지 댐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선제적인 댐 수위 조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응해 홍수로 인한 피해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호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본격적인 홍수기가 다가온 만큼 가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전 준비를 다하여 홍수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장수노인 생신 축하 사업 추진 장흥 장평면

장흥군 장평면은 지난 2일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장평면과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몸노인의 우울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별 최장수 어르신께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생신상을 받은 장수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조용히 보낼 뻔한 생일날을 많은 분들께서 집에 찾아와 축하해주셔서 특별한 하루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호 장평면장은 “소박한 생신상이지만 직접 찾아 밭고 함께 축하함으로써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 많고 더 나은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개막 지난 4일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개막했다. 어린이날 연휴에 열린 이번 축제에 전국 각지의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찾았다. 고흥군 제공

‘바가지요금 없는’ 거북선축제 여수시,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

여수시가 바가지요금 없는 거북선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공무원, 소비자단체, 물가 모니터링 등 20여 명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일원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참여자들은 관광객이 주로 찾는 상권을 중심으로 해양공원 주변 식당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등 상거래 질서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르네상스 다함께 친절실천 시민운동’과 연계해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여수 이미지 구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호소했다.

여수시는 이번 거북선축제를 대비해 △물가안정 점검반 편성 △행사장 물가관리 부스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며 축제기간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소원을 말해봐” LG화학 여수공장 15년째 선물

‘지니데이’ 전달식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필요한 선물을 전하는 ‘지니데이(Genie Day)’ 전달식을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2일 여수시청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김정희 여수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니데이’ 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지니데이’는 LG화학의 임직원이 랩프의 요정 지니가 되어 청소년들의 소원이나 사연을 들은 뒤 필요한 선물을 후원하는 LG화학 여수공장의 아동·청소년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 15년째를 맞이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지역 내 40개 지역아동센터 250여명 청소년들의 사연과 가지고 싶은 품목에 대한 소원 설문도 진행했다. 중학교 3학년 김민수 군은 “지니야, 학



LG화학 여수공장과 여수시 등이 지난 2일 여수시청에서 ‘지니데이(Genie Day)’ 전달식을 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제공

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나에게는 문제지가 꼭 필요해. 문제지가 있는 과목들은 점수가 높는데 없는 과목들은 성적이 낮아. 이번에 도서 상품권을 받는다면 꼭 학습지를 많이 사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필요한 문구류도 사고 싶어”라고 사연을 작성했다.

초등학교 3학년 이나라 양은 “지니야, 나는 우리 엄마가 이쁘게 화장하는 모습이 좋아. 그런데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

느라 바빠서 화장품을 사러 다닐 시간이 없어. 니가 화장품 상품권을 나한테 주면, 나는 그걸로 썬크림이랑 예쁜 립스틱을 사서 엄마한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 거야”라는 사연을 작성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현규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품을 가질 수 있는 기쁨과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500여명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업인 ‘꿈을 품다, 희망 Green Box’와 취약계층 청소년 150여명 대상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인 ‘꿈꾸라 희망스마일’ 등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